



학교우유급식의 효과와 확대방안

김 명 호

1. 학교급식의 필요성

학교급식의 역사는 길다. 구미는 물론 이웃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은 의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즉,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끼의 식사로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린이의 성장 및 발육면에서, 질병의 예방면에서, 체력의 증강면에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에서 많이 증명된 바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과학적인 면이외에도 학교급식은 하나의 집단급식이기에 개별적인 식사로서는 고치기 힘든 식사예절이나 식사에 따른 정서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교급식의 역사는 어언 30여년이나 되고 시초는 6·25동란후이기에 점심 못먹는 학생들에 대한 구호급식 즉 빵과 우유의 제공이란 형태를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학교급식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영양급식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간 1977년 일반급식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았던 크나큰 식중독사건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뒤늦게나마 학교급식법의 제정 및 공포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크게는 학생건강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또 작게는 학생 각 개인의 건강증진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안다.

학교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날의 체험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학생이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은 물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고 본다.

(1) 학교급식은 극빈아동을 위한 구호급식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2) 학교급식은 어린이들의 영양을 개선하고 체위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학생의 건강관리 및 체력관리의 일환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3) 학교급식은 국민의 식생활습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2.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1985학년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학교는 전국적으로 7,591개교(분교포함)인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541개교(약70%)에 불과하다. 학생수로 말하면 전체 국민학교 학생수는 4,856,000명인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는 불과 203,000명(약 4%)이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수적으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 만은 아니다. 더 나가서 급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시정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급식학교에는 대부분의 경우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영양적인 식단을 마련하기 힘든 곳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나 또 경제기획원과 같은 정부기관을 통해서 파악된 것만해도 다음과 같고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이 없이 결코 급식의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안다.

(1) 급식체계의 일원화

오늘날과 같이 급식업무체계가 문교부와 체육부의 양부에 걸쳐서 업무추진부서와 예산운용부서가 분산되어 있기에 업무의 능률이 저해를 빚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급식학교의 교사(영양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원화되고 있다. 또 급식활동을 위한 민간조직이나 기구의 활동이 미흡하다.

(2) 급식방법의 효율적 개선

급식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학교별 급식방법으로 급식의 효율성이 저하하고 있다. 즉 집단급식을 요하는 학교까지도 급식에 관련된 시설이나 설비를 학교별로 설치 또는 건립하여 경비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학교별 조리급식에 비하여 집단조리급식의 경우 시설투자비는 42~56%이면 되고 운영 유지비는 63~72%이면 되는데 경비의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품의 개별매입에 따른 물품조달의 불합리성이나 고가(高價)에서나, 위생관리의 소홀로 위생수준이 저하되고 적정식단의 유지가 곤란하다.

(3) 기존급식시설의 활용방안의 검토의 부족

제한된 학교시설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가 존립하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공공 또는 민간기관의 구내식당 등 활용에 의한 급식상 확대방안의 검토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기존 급식학교의 급식시설의 활용으로 인근 학교 학생에게 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검토도 미흡하다.

(4) 급식학교내 급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의 미흡

어떤 학생에게 급식을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와같은 것이 결여되고 있다.

(5) 급식재원면의 난점

급식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시설확충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급식에 대한 재원의 활용 특히 민간 참여로 인한 재원의 조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급식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학부모의 경제력을 감안한 급식비 지원기준의 설정이 요청된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품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므로써 지원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6) 급식제도의 운영

급식제도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제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참고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3. 학교급식의 확대방안

학교급식은 교육적 견지에서 영양교육은 계속 필요하고, 농업생산면이나 국가식량 정책상에서도 필요하다. 또 국민의 식생활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급후 구미제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전체 국민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또 우리도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완전급식의 실현을 보아야 하겠다.

현행 학교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번 조사연구에서 지적된바 있다. 특히 직접 책임져야 할 급식관리자, 학교장,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중에는 학교급식이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확고한 철학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우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완벽할 만큼, 철학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학교 학교대상이란 차원을 넘겨 중학생에 대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과 또 점심뿐 아니라 아침 식사까지 공급한다는 더 나가서 학생에게만 아니라 학교에서 방학동안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까지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예산의 대폭증액이 요청되나 이것은 단기기간에는 실현되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진흥 기금의 조성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민간차원의 급식기금을 설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우선 급식시설비와 급식품의 안정공급기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동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체육부)의 감독을 받아 민간단체가 관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기금의 재원을 학교급식 소요물자중 가능한 일부 품목(예컨대 밀, 우유, 분유 및 빵, 면류는 공동조달품목으로 전환)에 대하여 납품회사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고 납품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급식진흥기금을 적립한다. 또 가능하면 회원 특히

사업참여회원의 출연금으로서 본 진흥금을 증식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조성된 기금은 사업비 이외에는 우선적으로 신설 급식교의 시설비에 투입됨으로서 국고에 의한 증설과 함께 급식교가 증가되고 이 증가에 따라서 급식물자의 수급 또한 증대하여 이와같은 상승작용은 급식교의 확대 즉 급식 대상의 확대를 가속화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급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및 발육을 위해서 급식내용 즉 무엇을 먹일 것인가 신중히 생각할 때 빵이나 밥이나 우유나 두유나 등 논쟁의 여지가 많고 이것이 정부 정책과도 관계가 있으나 밥보다는 빵을 두유보다는 우유를 먹여야 하겠다. 백미로 된 밥만 먹어 온 우리에게 밀가루를 하루 속히 자급자족해서 편리한 빵식이 권장되고 또 아무리 두유가 좋다고 해도 우유에는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니 낙농을 잘해서 우리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체력도 강해질 것이다. 빵이 힘든 곳에서는 밥을, 우유가 구하기 힘든 곳에서는 두유를 먹일 수도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이다.

해외소식

台灣, 經濟展望 및 動向

2000年 1인당 GNP 14,750弗

최근 대만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의하면 대만은 2000년까지 年平均 6.5%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여 1인당 GNP 14,750弗의 先進國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産業別로는 서비스산업이 年平均 成長率 7.6%로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2000년에는 GNP의 52.6%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5 對美 貿易黑字 120억불

대만-미국간의 1985년도 貿易規模는 전년 보다 12.6% 증가한 224억불로서 대만은 캐나다, 일본, 서독, 멕시코, 영국 다음의 여섯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대만의 對美貿易黑字 또한 크게 증가하여 전년보다 22.4%나 늘어난 120억불에 달했는데 이는 대미 무역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중 일본 497억불, EC 274억불, 캐나다 222억불에 이어 네번째로 큰 규모이다.